

2020년 9월 24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테슬라, 니콜라, 그리고 파월 발언으로 급락 파월, “연준 정책은 금융시장 고통을 덜어 주려는 시도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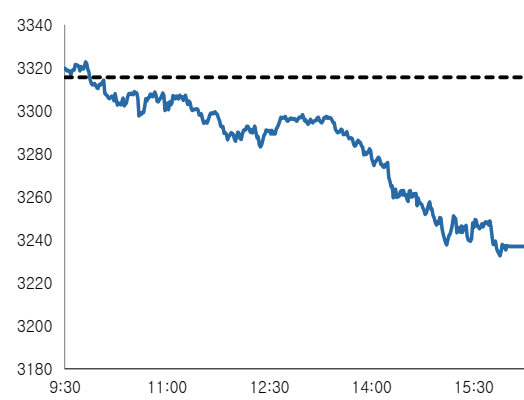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반발 매수세 실종

미 증시는 테슬라(-10.34%)와 니콜라(-25.82%)의 하락 여파로 기술주 위주로 조정을 보이며 급락. 파월 연준의장과 연준위원들도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정책에 신중함을 시사한 점도 부담. 특히 유동성의 힘에 의해 연초 대비 급등한 종목군의 낙폭이 컸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상품 등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부담(다우 -1.92%, 나스닥 -3.02%, S&P500 -2.37%, 러셀 2000 -3.04%)

파월 연준의장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의회에 출석해 회사채 매입이라는 연준의 노력이 일자리를 구했다고 주장. 더불어 연준의 행동은 금융시장의 고통을 덜어 주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언급한 가운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며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표명. 특히 재정정책의 영향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 재정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통은 지속되고 있어 금리는 빠르게 인상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 그렇지만 연준의 새로운 정책을 언급하기 보다는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현재는 더 적절하다고 강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켈스 연준 부의장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은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언급.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미국 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있고, 이를 견인할 재정정책이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해 투자심리 위축을 더욱 자극

여기에 테슬라(-10.34%)에 대해 배터리데이에서 단기적인 촉매제가 부족했다며 목표주가 하향 조정이 이어지자 급락하고 니콜라(-25.82%)가 최근 사기 논란 속 BP 와 논의하던 수소충전소 건설 협상이 중단되자 급락.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 장미빛 전망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상승을 해왔던 종목군의 조정을 촉발 했으며 파월 의장의 지속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옴. 시장 일각에서 반등을 보일 요인이 많지 않아 악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점도 부정적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333.24	+0.03	홍콩항셱	23,742.51	+0.11
KOSDAQ	843.45	+0.09	영국	5,899.26	+1.20
DOW	26,763.13	-1.92	독일	12,642.97	+0.39
NASDAQ	10,632.99	-3.02	프랑스	4,802.26	+0.62
S&P 500	3,236.92	-2.37	스페인	6,654.20	+0.08
상하이종합	3,279.71	+0.17	그리스	622.34	-0.37
일본	23,346.49	-0.06	이탈리아	18,929.89	+0.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테슬라 -10.34%, 니콜라 -25.82%

테슬라(-10.34%)는 배터리데이 이후 새로운 촉매제가 없다는 분석과 더불어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확산 되자 급락했다. 한편, 배터리데이에서의 리튬 배터리 가격 정책 관련 발표는 앨버말(-15.56%), 리벤트(-9.01%) 등 리튬 관련 종목들의 급락을 불러왔다. 니콜라(-25.82%)는 사기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수소 충전소 건립을 위한 BP와의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다. 이 영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애플(-4.19%), 아마존(-4.13%), 알파벳(-3.48%), MS(-3.29%) 등 대형 기술주는 물론 세일즈포스(-4.76%), NVIDIA(-4.07%), 넷플릭스(-4.19%) 등에 차익 출회를 야기해 관련 종목들이 급락했다.

JP모건(-1.62%), BOA(-2.84%) 등 금융주는 불법자금 관련 이슈와 함께 지난 17일 연준이 발표한 추가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여파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도 매물 출회되며 약세를 보였다. J&J(+0.16%)는 코로나 백신 3상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화이자(-0.69%), 머크(-0.37%) 등 여타 제약주 등은 코로나 확산 여파로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다. 나이키(+8.76%)는 양호한 실적 기반으로 강세를 보였다. KB홈(-7.53%) 양호한 실적 불구 장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하락했다. 마이크론(+0.30%)는 다음주 29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5.23%	대형 가치주 ETF(IVE)	-1.84%
에너지섹터 ETF(OIH)	-6.31%	중형 가치주 ETF(IWS)	-2.24%
소매업체 ETF(XRT)	-2.65%	소형 가치주 ETF(IWN)	-3.21%
금융섹터 ETF(XLF)	-2.23%	대형 성장주 ETF(VUG)	-2.78%
기술섹터 ETF(XLK)	-3.12%	중형 성장주 ETF(IWP)	-1.7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75%	소형 성장주 ETF(IWO)	-2.83%
인터넷업체 ETF(FDN)	-2.27%	배당주 ETF(DVY)	-2.15%
리츠업체 ETF(XLRE)	-2.84%	신흥국 고배당 ETF(DEM)	-2.40%
주택건설업체 ETF(XHB)	-2.9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31%
바이오섹터 ETF(IBB)	-1.27%	미국 국채 ETF(IEF)	-0.02%
헬스케어 ETF(XLV)	-1.03%	하이일드 ETF(JNK)	-0.94%
곡물 ETF(DBA)	-0.34%	물가연동채 ETF(TIP)	-0.10%
반도체 ETF(SMH)	-2.29%	Long/short ETF(BTAL)	+0.25%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29.05	-4.55%	-9.49%	-16.08%
소재	387.07	-2.93%	-6.96%	-1.86%
산업재	636.51	-1.76%	-4.93%	-2.90%
경기소비재	1,163.66	-2.24%	-3.45%	-5.90%
필수소비재	640.35	-1.56%	-3.14%	-3.38%
헬스케어	1,188.52	-1.08%	-3.51%	-4.54%
금융	386.22	-2.19%	-6.61%	-6.63%
IT	1,946.14	-3.21%	-3.34%	-7.33%
커뮤니케이션	189.25	-2.68%	-4.89%	-7.40%
유틸리티	290.39	-1.61%	-4.11%	-3.35%
부동산	210.45	-2.91%	-8.30%	-5.8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변동성 확대 지속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8% MSCI 신흥 지수 ETF 는 1.55% 하락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0.7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과거와 달리 수급 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이는 지난 9 월 FOMC 이후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신중함을 표명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더 나아가 테슬라와 니콜라로 인해 장미빛 전망을 기반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을 이어왔던 종목군의 변동성 확대는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증시에서도 연초 대비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 즉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파월 연준의장도 유동성 공급이 금융시장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며 선을 긋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심리 위축을 야기한 점도 부정적이다.

결국 유동성에 의해 상승을 이어왔던 시장이 파월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의 발언과 테슬라, 니콜라 등으로 펀더멘탈과의 괴리를 좁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 증시는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상품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경기 견고

9 월 미국 제조업 PMI 는 전월(53.6) 보다는 소폭 하락한 53.5 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인 53.2 를 상회했다. 서비스업 PMI 는 전월(54.8)은 물론 예상(54.7)을 소폭 하회한 54.6 으로 발표되었다.

9 월 독일 제조업 PMI 는 전월(52.2) 보다 크게 개선된 56.6 으로 발표되었으나 서비스업 PMI 는 전월(52.5)를 크게 하회하며 기준선인 50.0 을 하회한 49.1 로 발표돼 위축 되는 경향을 보였다.

9 월 유로존 제조업 PMI 는 전월(51.7)을 크게 상회한 53.7 로 발표되었으나 서비스업 PMI 는 전월(50.5)는 물론 기준선을 하회한 47.6 으로 발표돼 유럽 전반에 걸쳐 소비 둔화를 시사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재고 감소 불구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소폭 하락

국제유가는 EIA 가 지난 주 원유재고가 164 만 배럴 감소하고 가솔린도 403 만 배럴, 정제유도 336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급락과 여타 상품시장 변동성 확대로 매출 출회되며 소폭 하락 마감 했다. 한편, 최근 급락하던 천연가스는 18% 급등하는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변동성 확대는 지속되었다.

달러화는 연준위원들이 통화정책에 대해 신중함을 표명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서비스업 PMI 지수가 기준선을 크게 하회하는 등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여타 신흥국 환율 또한 글로벌 무역이 여전히 위축되고 있다는 켈스 연준 부의장의 발언 등으로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해 많은 연준위원들이 경기 회복 둔화를 언급하며 저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새로운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시사하자 상승했다. 특히 파월 의장이 연준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주장한 점도 영향을 줬다. 그러나 5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7 배)를 상회한 2.52 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미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등 보합권에 머물렀다.

금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2.1% 하락했다. 은도 7% 가까이 하락했으며 구리 및 비철금속 또한 달러 강세 여파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3% 철근은 0.33%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9.93	+0.33	-1.19	Dollar Index	94.390	+0.43	+1.26
브렌트유	41.77	+0.12	-1.07	EUR/USD	1.1657	-0.44	-1.35
금	1,868.40	-2.05	-5.18	USD/JPY	105.39	+0.44	+0.42
은	23.105	-5.78	-15.91	GBP/USD	1.2715	-0.14	-1.94
알루미늄	1,754.50	-1.24	-2.28	USD/CHF	0.9239	+0.45	+1.59
전기동	6,604.50	-2.59	-2.55	AUD/USD	0.707	-1.41	-3.23
아연	2,404.00	-2.45	-4.91	USD/CAD	1.3384	+0.60	+1.56
옥수수	368.50	-0.20	-0.87	USD/BRL	5.5912	+2.18	+6.75
밀	549.00	-1.61	+1.29	USD/CNH	6.8274	+0.64	+1.22
대두	1,014.50	-0.51	+0.32	USD/KRW	1164.40	-0.05	-0.99
커피	110.50	-0.14	-7.80	USD/KRW NDF1M	1170.74	+0.60	-0.2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76	+0.49	-2.12	스페인	0.223	-1.00	-3.60
한국	1.450	-1.70	-3.20	포르투갈	0.245	-1.00	-4.00
일본	0.008	-0.70	-1.30	그리스	1.011	-3.90	-5.40
독일	-0.505	0.00	-2.10	이탈리아	0.849	-1.50	-11.80